

## 성경 연구

2월 1일 교훈

#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

**핵심 구절:** “그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도자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11,12

**선별된 성경 구절:**  
에베소서 4:11-16

이 장이 시작되면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너희가 부름받은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간청합니다(에베소서 4:1). 이는 기독교로의 회심을 의미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평범한 직업 이상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믿음, 사랑, 용서, 섬김, 희생, 연합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이고 드러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이요 한 성령이시니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며 모든 사람 안에 계신 한 하나님, 곧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니라.” (에베소서 4:3-6) . 이 구절들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파주의 정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영원한 아버지께서 창조주이시며 최초 원인(First Cause)이심을 인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등한 신들의 삼위일체 개념은 성경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는 오순절 날에 초기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4,9-14; 2:1-4). 그때 주님의 제자들, 특히 하나님의 신적 영감을 받은 대표자들인 사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기록한 것들은 전념한 신자들이 지상에서의 여정 내내 인도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7-10

우리의 핵심 구절들은 주님께서 복음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대로 사역의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세우신 영적 지도부의 직분들을

개괄합니다. 바울은 이 사역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헌신과 영으로 날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오는 왕국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라는 초대에 응답하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현재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모임과 대회, 교제 속에 함께하며 개인적인 연구와 기도에 힘쓰면서 희생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쁘게 받으실 때"(고린도후서 6:2)에 우리 생명을 헌신하는 이 위대한 특권을 받았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이는 형언할 수 없는 기회이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바라지 못할 이처럼 높으신 전망을 인정하는 우리의 겸손은 커야 한다.

이 "마지막 날들"에 우리는 "현재의 진리"(베드로후서 1:12,13)를 알고 감사하게 된 놀라운 유산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제 안의 사람들이 받아들인 수많은 가르침들은 하늘 아버지의 위대하신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적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향력을 통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일들에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신실하다면, 우리는 결국 인류가 에덴에서 잃어버린 완전함으로 회복되어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화해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10,11